

□ 심사위원 종합의견

Digicon6는 올해도 한국지역 어워드 선정평가에 예년보다 늘어난 70편이 지원되어 뛰어난 작품성으로 치열하게 자웅을 겨룰만큼 이제 명실상부하게 애니메이션 작가의 글로벌 등용문으로 자리잡은 느낌입니다. 20대 초중반의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들이 지원하였고, 출품된 작품 역시 전통적인 레거시 제작 방식부터 AI영상을 활용한 작품까지 여러 장르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작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본 선정 평가의 취지에 맞게 우선적으로 작품성과 기획의도의 독창성을 중시하여 뚜렷한 작가 정신이 녹아든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일본 본선에 출품되는 작품들도 다른 아시아 국가의 작품들과 경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응원드리며, 앞으로도 젊고 유능한 애니메이션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우리 문화와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K-애니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문화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열정과 자부심을 당부 드립니다.